



전북대학교박물관이 매주 목요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영화 상영 '목요시네마 뮤즈'가 오는 14일부터 이어진다.

지역과 상생하는 따뜻한 문화 소통공간

전북대박물관, 매주 목요일 명작 영화 무료 상영... 연 3500명 참여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조대연)이 매주 목요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 영화 상영 '목요시네마 뮤즈'가 오는 14일부터 이어진다.

또 전북대박물관은 영화 상영뿐 아니라 우리지역의 영화 촬영 장소 답사, 감독과의 대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작들이 지역민을 찾아가는. 조대연 전북대박물관장은 "목요시네마 뮤즈가 8년째 이어지고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대학과 지역의 소중한 사명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제공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고 많은 것을 나누는 따뜻한 문화 소통공간이 되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 '지금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있나요?'

"모든 순진한 영혼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기를 권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욕심이 저절로 새하얗게 반짝거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빨갛게 저 혼자 세탁, 다림질, 개기를 거쳐 옷장 안에 정돈되지 않으며, 냉장고가 벽에 뚫린 비밀 도관을 통해 채워지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할 터다. 게다가 진정한 마법의 세계에서조차도 집안일은 해야만 한다."

더 일찍 벗어나지 못한 날에는 하루가 더 짧게 느껴진다. 혹여 누군가 내 시간을 도둑질하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히 쉬지 못한다. 다시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 와도 예전처럼 더 이상 '다른 곳에', 남들이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안식처에 머물렀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인터넷은 집콕족이 자신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활력을 선사하고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낯섦'의 느낌을 더욱 희귀하게 만든다.



노와 비난으로 가득한 부정적인 반응을 술하게 쏟아 낼지도 모른다" 박명숙 옮김, 496쪽, 1만9000원, 부키 /뉴스

박양우 문체부장관 후보자 "11년만의 복귀... 청문회 준비 잘할 것"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양우(61)전 문화체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 청문회가 남아있으니 준비 잘하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밝은 분위기였다.

부 차관을 지냈다. 장관 내정 소식이 전해지면 CJ E&M 사외이사 등을 지낸 그의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영화 반독점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이하 대책위)은 성명서를 내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CJ E&M 사외이사과 감사를 맡고있는 박양우 장관 내정자가 CJ E&M 인사와 국내 영화 산업 독과점 폐해를 심화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말은 민족의 정신, 글은 민족의 생명'

부안군, 21일 무료영화 상영의 날 '말모이' 상영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오는 21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영화 '말모이'를 무료로 상영한다.



특히 3월의 부안군민 무료영화 상영의 날은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나라사랑의 계기로 삼고자 영화 '말모이'를 선정했다. 영화 '말모이'는 엄유나 감독(택시 운전사 각본 등) 작품으로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1940년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전국의 우리말을 모으는 말모이에 힘쓰는 조선어학회와 그 시대를 담은 영화이다.

신을 생각하면서 영화 '말모이'로 나라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부안군민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의 날은 매일 셋째 주 목요일로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오셔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과 탄식으로 함께 울고 웃으며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